

여름방학, 성적 역전의 기회로 활용하라

■대입 가이드

6월12일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시작되었다. 한국인들은 정말 축구를 좋아한다. 월드컵 경기가 있을 때면 모두 TV 앞에 모여 앉아 숨을 죽이며 경기를 지켜본다. 한국인의 응원 열기는 또 어떤가? 거리응원에 길거리를 지나는 차들은 뱅뱅 거리며 열광적인 응원을 다한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 역시 우리나라 경기가 있을 때면 새벽이고 밤이고 없이 모여서 응원을 한다. 축구경기의 가장 큰 묘미 중의 하나는 바로 역전에 있다. 동점으로 비기던 경기에 우리 쪽에서 한 골을 더 넣으면 나라가 출렁거릴 정도로 열광의 도가니에 빠진다. 한국의 마라톤 인구가 400만명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에는 역전 마라톤이라는 것이 있다. 구간 구간마다 일정거리를 달린 주자들이 400m 계주하듯이 바통을 주고받으며 달리는 마라톤 대회다. 역전 마라톤은 구간 별로 정해진 주자가 앞서 달리는 주자를 따라 잡고 역전한다는 의미로 역전 마라톤이라고 한다. 마라톤 경기를 보다 보면 처음부터 선두를 달리던 마라토너가 마지막 결승점에 다다르며 뒤처지던 러너에게 역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결승점을 앞두고 죽을힘을 다하여 선두자리를 쟁치는 장면을 보며 우리는 감동을 한다. 고교생들에게 있어 여름방학은 이렇듯 경쟁자를 물리치며 앞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GPA 끌어올리기

11학년의 경우가 그렇다.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11학년이 지난 여름방학에 택한 코스들도 모두 포함해서 대학 입학심사가 된다. 11학년 이후의 여름방학을 제대로 계획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11학년 1학기 성적이 나오고 난 후 만족스러운 GPA를 만들지 못했다면 여름방학을 기해 대학에서 제공하는 고급 수준의 클래스를 몇 개 택하여 A를 받고 학점을 인정받아 고교 GPA를 상당히 올릴 수가 있다.

고교의 재량에 따라 일부 고등학교는 대학에서 듣는 과목을 모교의 GPA로 받아주지 않는 학교가 있지만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학에서 들은 과목의 성적은 대입 지원서 작성 때 과목과 성적을 기록하고 지망하는 대학에 그 과목의 성적을 보내면 입학사정 때 총괄적으로 성적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학교 성적은 대학

의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먼저 살피는 부분이다. 학교 성적이 형편없거나,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다소 낮은 상황을 과외활동 또는 에세이로 보충하거나, 대안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내신성적을 무시하는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 지원한 대학 수준에 맞는 GPA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성적을 끌어올리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자기 상황 분석

먼저 여름방학 계획은 학생의 성과 기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계획되어 져야 한다. 이 세상 모두가 탐 명



고교생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 대학에서 제공하는 여름캠프에 참여해 보는 등 알찬 방학을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고급 클래스 선택해 집중 에세이·지원서 작성에 필요한 경험 축적토록

문대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옵션에서 선택을 하면 좋겠다.

1. 자신만의 독특한 4년간의 여름 방학 트랙을 만들 것인가? 2. 여름방학 동안 인턴십이나 일을 해 볼 것인가? 3. 고교에서 제공하는 여름방학 캠프나 클래스를 들을 것인가? 4. 유명 대학에서 제공하는 여름캠프에 참여할 것인가? 5. 대학에서 제공하는 서머 클래스를 들을 것인가? 6. 미국 내 텔런트 서치 프로그램을 택할

수 있는가? 선택하기 전 각각의 여름 방학 프로그램들의 옵션을 택했을 때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대입 학력고사 준비

대부분의 학생들은 11학년을 마치기 전 SAT 또는 ACT를 최소한 한번은 치렀을 것이다. 만약 점수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을 경우 가을학기에 재도전을 목표로 여름방학 때 철저한 준비를 한다.

필요에 따라 전문학원 등록을 통해 여름방학 8주 또는 10주 코스를 수강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이들 학원은 수강생 모집이 한창이다. 학원에서 주는 과제물을 꼼꼼히 수행하고 집에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자습하도록 한다.

▲과외활동도 꾸준히

12학년 직전 여름방학을 엄청 바쁘게 보내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과외활동의 ‘연속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없이 강조되어 온 것이지만 과외활동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예능, 스포츠, 커뮤니티 봉사, 아르바이트 등 9학년 때부터 심도 있게 해온 활동이 있다면 여름방학 동안에도 그 활동을 꾸준히 하도록 신경 쓴다. 지금까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새로운 활동을 11학년을 마치는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깊이 있게 하면서 좋은 결과물을 얻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추천서 써줄 사람 물색

UC의 경우 추천서가 필요 없지만

대부분 명문 사립대들은 추천서를 요구한다.

추천서는 지원자가 학교 안팎에서 얼마나 특별한 학생인지 제3자의 견해를 통해 대학에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추천서 양식은 작성자로 하여금 지원자가 왜 바람직한 신입생 후보인지 자세히 기술할 것을 요구한다. 일부 대학은 2개 이상의 추천서를 요구하기도 해 추천서 작성을 부탁하기 전 각 학교의 입학요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들은 보통 입학원서를 통해 추천서는 누가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준다. 교장이나 고교 카운슬러, 특정과목 교사 등이 주로 추천서를 써주는 인물들이다.

교사에게 추천서를 부탁할 경우 가능하면 영어, 수학, 과학 등 서로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다. 학생을 좋아하고 학생의 진가를 알아보는 선생, 11학년 또는 12학년 가을학기 때 택한 과목의 선생을 추천서 후보 0순위에 두도록 한다.

추천서 양식을 작성자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긍정적인 내용의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는 것은 학생의 권리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상대방이 좋은 추천서를 써주기가 어렵다고 말할 경우 고마움을 표시하고 다른 사람을 찾도록 한다.



제이 박
어드미션 마스터즈
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지적 호기심·자유시간 활용, 입학사정관들 주목

▲서머 프로그램 활용

고교생들에게 있어 여름방학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8학년이 끝나는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11학년이 끝나는 여름방학까지를 계산하면 1년이 된다. 입학사정관들은 고교생활 전체의 4분의 1에 속하는 자유 시간을 어떻게 현명하게 보내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입학사정관들이 자유롭게 주어진 시간에 지원자가 얼마만큼의 지적 호기심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살핀다.

대학 입학 지원서를 보면 서머 프로그램이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력을 쓰는 섹션이 있다. 다른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 성적도 기록할 수 있다. 특히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을 좋은 성적으로 이수했다면 그들이 대학

에 와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게 성공적인 대학과정을 마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미 지금까지의 성적이 충분히 만족스럽다 해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찾아보고, 도전하고, 진로를 창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의 폭을 넓혀가며 추구해야 하는 것이 여름방학이다.

이미 뛰어난 일부 여름방학 프로그램들이 마감을 했지만, 아직 기회는 많이 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반드시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또한 많은 학생들이 대입 지원서에 그들이 보냈던 여름방학 활동들을 가지고 에세이의 주제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름방학은 대입 지원에

필요한 결정적인 경험과 영양가 있는 소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학생들은 “여름방학은 그야 말로 방학이다. 나는 여름방학을 여행을 하고 가족과 휴가를 보내고 코리안 드라마도 보고, 잠을 실컷 자며 폭 쉬고 싶다”고 말한다.

휴식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계획성 있게 스케줄을 짜서 지혜롭게 쓰라는 얘기다. 이는 시간관리(time management)와 연결된다. 여름방학이란 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입시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학생 본인에게 달려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절제, 그리고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름방학이다.

남가주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래 음악가들의 등용문 ~

어린이 음악경연대회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가장 전통 있는 한국일보 어린이 음악 경연대회가 올해로 44주년을 맞이합니다.

본보 창간 이듬해부터 매년 열려 온 이 대회는 43년여 동안 많은 우수 연주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주류 음악계에 진출해 주목받는 음악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어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한인어린이 누구나 출전 가능하며 음악가를 꿈꾸는 한인 2세 어린이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도 한미은행의 특별협찬과 함께 한미은행장 상을 마련하여 장학금과 트로피도 전달됩니다. 음악가의 꿈을 키워나가는 어린이들에게 뜻 깊은 경험이 될 본 대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14년 11월 22일 (토) 오전 9:00 ~ 오후 5:00
- 장 소 : LA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 참가부문 : 피아노부문, 현악부문 (바이올린, 첼로)
Division I (초등부) : 8세~11세
Division II (중등부) : 12세~14세 * 2014년 11월 22일 생일 기준
- 시 상 : 각 부문 대상 - 상금과 트로피
입상 - 트로피, 참가자 - 참가트로피

* 자란에 같은 부문 1위 입상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마감 : 2014년 11월 14일 (금)
- 신청서류 : 1) 본보 소정양식
2)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
- 신 청 비 : \$70
- 신청문의 : 한국일보 사업국
Tel. (323) 692-2068, 2187
Fax. (323) 692-2137
e-mail : reneroe@koreatimes.com

연주곡

* Requirement Music for The Competition

• Piano	Play any original piano solo (except Concertos) piece or One fast movement from any Piano Sonatas, composed in any musical period. And the length of the piece should be less than seven minutes long.	Division II	Play any original piano solo piece (except Concertos) or One fast movement from any Piano Sonatas, composed in any musical period. And the length of the piece should be less than ten minutes long.
• Strings (Violin / Cello)	Division I	Division I	Play any original Violin/Cello solo piece, composed in any musical period. And the length of the piece should be less than seven minutes long.
	Division II	Division II	Play any original Violin/Cello solo piece, composed in any musical period. And the length of the piece should be less than ten minutes long.

* The contestant plays only one repertoire at the competition.

●주최:  한국일보 ●특별협찬:  Hanmi Bank ●후원: 안스피아노, LA Violin Shop